

제2장

중기재정운용 여건과 전망

2장 중기재정운용 여건과 전망

I. 일반현황¹⁾ (2015. 7. 1 기준)

□ 기본현황

- 인 구 : 135천세대, 341천명 (부산시 전체의 9.56%)
- 면 적 : 41.7km² (부산시 전체의 5.4%)
- 행정구역 : 16동 438통 2,619반
- 공 무 원 : 789명
- 행정조직 : 3국 2실 1단, 19과, 의회사무국, 보건소, 2사업소, 16동

□ 기반시설

- 도 로 : 234km (도로율 17.3%)
- 주 택 : 129천호 (보급율 103.9%)
- 상 수 도 : 28.2천전 (보급율 100%)
- 하 수 도 : 868km (보급율 95.3%)
- 도시철도 : 6.4km (1호선, 6개역)
- 공원·유원지 : 54개소

□ 생활환경

- 문화관광시설 : 34개소
 - 문화회관1, 도서관2, 작은도서관13, 주민센터16, 영화관1, 관광호텔1
- 교육기관 : 63개교 (대학교2, 고14, 중16, 초27, 특수학교1, 기타3)
- 체육시설 : 298개소 (체육도장89, 골프연습장54, 수영장1, 기타154)
- 어린이집 : 206개소 (국공립17, 법인16, 민간79, 가정93, 직장1)
- 등록차량 : 111,876대 (승용90,072, 화물16,661, 기타5,143)

1) 2015년 지역기본자료(사하구)

□ **사회복지 및 보건·의료**

- 복지시설 : 63개소
 - 복지관 5, 장애인 12, 노인 21, 여성 2, 아동 20, 노숙인 1, 자활센터 2
- 의료업소 : 480개소 (병원 41, 의원 171, 치과의원 101, 한의원 84, 기타 83)
- 약 업 소 : 355개소 (약국 120, 한약방 1, 의료기기판매업 228, 도매상 6)

□ **지역경제**

- 공업입지 : 9.51km², 등록업체 1,634개, 종업원 32,911명
- 공단현황 : 2,845천 m², 621개 업체
 - ▷ 신평 · 장림산업단지 (885천 m², 161개 업체),
 - ▷ 협업화산업단지 (1,960천 m², 460개 업체)
- 유통시설 : 38개소 (대형마트 3, 쇼핑센터 2, 전통시장 15, 기타 18)

□ **국내외 자매결연, 우호협력 도시 현황**

- 국 내(1) : 경기도 안성시
- 해 외(1) : 중국 상해시 갑북구

□ **재정규모**

<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>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우 리 구 (구성비)	부 산 시 (구성비)	비고
계	4,029 (100%)	112,073 (100%)	
일반회계	3,866 (95.9%)	77,050 (68.7%)	
특별회계 (기타, 공기업)	104 (2.6%)	25,797 (23.0%)	
기 금	59 (1.5%)	9,226 (8.3%)	

※ 재정자립도²⁾ 16.8%, 재정자주도³⁾ 28.7%

2)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 가늠 지표, 자체수입액 / 일반회계 예산총계 규모, 자체수입=지방세+ 세외수입

3) 재량적·자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재원비율, (자체수입+ 자주재원) / 일반회계 예산총계 규모, 자주재원=지방교부세+ 조정교부금등

II. 대·내외 경제 전망

세계경제 전망

- (2015년)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개선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신흥국 성장둔화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 회복세는 제약될 전망
 - 미국은 1/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고용시장 개선 등 회복세, 유로존은 완화적 통화정책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 유지
 - 일본은 양적완화 효과 등으로 경기가 개선되는 모습이었으나, 2/4분기 수출·소비 부진으로 일시적 둔화
 - 중국은 경착륙 가능성은 제한적이나, 부동산·증시불안 등으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 상존

- (2016년 이후)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美 금리인상 등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및 중국 성장둔화 등 하방위험 상존
 - 선진국은 당분간 회복세를 지속하겠으나, 미국·유로·일본 등의 통화정책 기조변화로 인해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
 - 신흥국의 경우 점차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, 중국의 성장 둔화 등이 하방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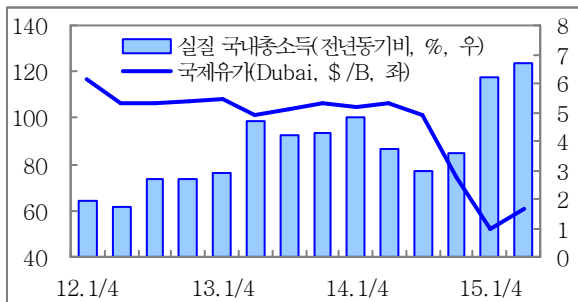
<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(% , IMF, '15.7월) >

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
세 계	3.4	3.3	3.8	3.8	3.9	3.9
· 선진국	1.8	2.1	2.4	2.2	2.1	2.0
· 신흥국	4.6	4.2	4.7	5.0	5.1	5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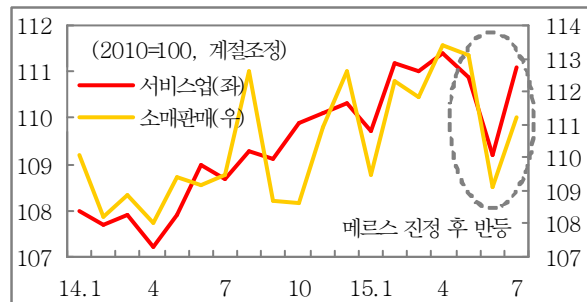
국내경제 전망

- (2015년) 확장적 거시정책, 메르스 사태 진정 등으로 하반기 중 회복세가 재개·강화될 전망
 - 저금리·저유가 여건, 실질소득(GDI) 증가세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메르스 진정 등에 따른 심리 개선으로 소비 반등 예상
 - 부동산시장 회복세 지속, 추경 등 재정보강 패키지 집행, 하반기 기업 투자 본격화 등으로 투자 회복세가 강화될 전망
 - 수출은 자동차·휴대폰 등 신제품 출시 등에 힘입어 점차 감소폭이 축소될 전망
 - 다만,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, 자동차·조선 등 주력 제조업 경쟁력 약화, 美 금리인상 여파 등의 위험요인도 상존

<국제유가와 국내총소득(GDI) 추이>



<소비관련 지표 추이>



- (2016년 이후) 세계경제 회복세,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 등으로 '16년 이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 예상
 - 세계경제 회복세, 세계교역량 개선 등으로 수출 회복 예상
 -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지속, 4대부문 구조개혁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가시화 등이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
 - 다만, 중국 경제 둔화, 유로존 불안, 가계부채 부담, 생산가능인구 감소('17년부터) 등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

2015~2019 국가재정운용 전략

□ 기본방향

- 2015~2019 기간 중에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
- 총수입은 비과세·감면 정비, 세외수입 확충 등의 노력과 함께 재정 외로 운영 중인 예산 외 수입을 재정체계 내로 편입
- 총지출은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면서도 모든 재정사업의 원점 재검토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
- 한정된 재원여건을 감안 민간투자 활성화,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등 민간유동성을 최대한 활용 경기 보완
-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노력 지속적으로 추진
- 재정개혁을 추진과 더불어 재정준칙을 제정 재정건전성을 확보

□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

-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복지, 문화, 안전 분야 투자 비중 확대
 - 세대·계층 간 복지프로그램 확충, 맞춤형 일자리 지원, 문화향유기관 확대 등으로 국민 행복시대를 뒷받침
 -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안전점검, 신종인플루엔자나 에볼라 등 새로운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강화로 안전사회 구현
- SOC분야는 투자 내실화, 민간투자 활성화로 재정투자 보완
- FTA 확대에 따른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활용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
- 고부가 농어업육성으로 농어업의 경쟁력강화 지원